

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산문)

제목

작품, 노동 그 이상의 가치.

열심히 준비하던 길을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다. 언론학을 전공하고 쪽 소위 '언론고시'라 불리는 입사 경쟁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늘 참담했다. 힘들게 신문사에 들어갔지만 고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덕분에 다시는 언론사 쪽으로 발도 담그지 않으리 다짐했다. 인생의 비전이 그 길 하나뿐이라 생각했기에 스물아홉이란 늦은 나이에 적성 찾기란 여로에 나설 필요가 있었지만. 일단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방송 촬영 현장을 기사에 담아주면 좋겠다는 감독 지시에 따라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촬영장으로 향했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아르바이트일 뿐인데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라는 생각에 짜증이 가시질 않았다. 대중교통 안에서 보려고 불법 다운로드한 외국 드라마나 마저 이어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프로 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던 때.

버스에서 내려 현장에 도착하자 그곳엔 아침부터 분주한 광경이 펼쳐졌다.

대본을 펼쳐 배역에 몰입할 준비를 마친 배우들부터, 그 옆에서 그들의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매니저. 다른 한쪽엔 배우들의 단장을 돕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소속사 직원들. 조도를 체크하는 조명 감독부터, 사운드를 지시받는 음향 감독과 그를 디렉팅 하는 감독. 대본을 체크하는 작가들과, 메이킹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세팅하는 외주 홍보사 직원까지. 수 십, 아니 수 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초췌한 물골로 열정을 태우고 있었다.

"오셨어요. 이쪽에서 잠깐 대기하시다가 현장 스케치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가볍게 인사를 나누자 오늘 할 일을 브리핑해 주는 조연출. 딱 봐도 나보다 두 살가량은 어린 듯한 외모였지만 현장에서 홀독하게 구른 탓인지 생기 없는 피부가 눈에 띄었다. 얼룩진 크록스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 후줄근했지만 심미정보단 기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듯한 그 차림에서 프로의식이 엿보였다. 아침부터 비비 크림이니 눈썹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업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시간을 쓰느라 대본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비록 그보다 내가 조금 더 깔끔한 차림이었다 해도, 나는 분명 그 장소

와 어울리지 않는, 붕 뜬 느낌의 복장으로 방문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다.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약 1시간? 근데 몰라요, 현장이란 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 약속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1시간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왜 1시간이나 남았는데 나를 이렇게 일찍 불렀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현장 직원도 아니고 그저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잠깐 들른 아르바이트고, 시급을 더 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금세 눈치챈 듯한 조연출은 슬쩍 웃음을 띠며 답했다.

“현장이란 게 다들 일찍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감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해요.”

“아... 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의 말대로, 그 자리에 앉아 그대로 멍하니 분주한 현장을 바라보며 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나를 제외하고 누구 하나 잠깐의 휴식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몸을 움직이는 곳. 마치 혼자만 정지 상태로 멈춰 있고, 모두가 2배속으로 움직이는 듯한 감각.

무언가가 마음속 어딘가를 자극했다. 열정.

그래. 이건 분명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들만 내뿜을 수 있는 뜨거운 에너지다. 일을 잘하고 싶고,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마음. 내가 처음 잡지사, 언론사에, 그리고 새로운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했던 그 자세. 이 일은 내 인생이고, 내 꿈이다. 노동이 아닌, 꿈을 이룬 무언가를 하는 중이다,라는 뿌듯함.

현장은 덥고 뜨거웠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쉬지 않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잊고자 노력했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감각이었다.

그때 불현듯 머리를 스친 것이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보상에 대해.

나는 늘 언론인 같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계 평균 연봉이 이렇게 낮아야 하냐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내가 취재한 바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 에너지에 대해 사회는 걸맞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의 내가 그랬듯, 그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에 좋은 작품을 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이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그들의 꿈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당장 내가 했던 일. 대중교통에서 버려야 할 2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외국 드라마. 사실 외국 드라마뿐만이 아니었다.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애니메이션부터 게임까지. 돈은 없지만 문화생활은 즐기고 싶다는 이상한 핑계를 대며 그것을 정당한 지불 없이 향유하는 것에 가치를 뒀다.

“야, 이런 영화를 14,000원이나 내고 보기 아깝지 않냐”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영화관에서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게임 하나 사는데 69,800원 너무 비싸지 않아? 온라인게임은 공짜로 할 수 있는데 ”

같은 자기변명. 부끄럽게도 당장 나조차도 그들의 꿈과 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중요했지, 그 콘텐츠 안에 숨겨진 그들의 땀과 열정은 딱히 내가 계산할 바가 아니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보도자료를 쓰겠답시고 방송 콘텐츠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정작 그것을 돈이 아닌 몰래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다는 사실이. 분명 저작권 같은 무언가가 있기는 했을 텐데, 그것을 곰곰이 고찰한 적이 없었다. 설령 저작권 운운이 나온다고 한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기에 위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던 것뿐이지,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는 살피지 않았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생긴 이유는, 그것을 제작하는,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다. 평소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부했던 나조차도, 이렇게 제작에 관여하기 전까지 몰랐던 부분이니,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얼마나 모르고 우습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적당히 기사거리를 따내 집으로 향하던 길. 부끄럽게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였던 드라마를 지우고, 매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노래를 들으며 가기로 했다. 나 또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드라마의 흥행 여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 되었기에. 그러니까 오늘 나와 같은 수고를 나눈 사람들의 여정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기에. 어쨌든 업계에 조금이라도 종사했던 사람이고, 나도 무언가를 작업하고 급여란 형태로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받는 노동자이므로. 다른 이들의 수고로부터 더 이상 눈을 돌리고 싶지 않았다.

작품은 분명, 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 굳이 외부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평가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작품을 향유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그것에 정당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 지 먼저 돌이켜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분명 그 현장, 초여름의 뜨거운 퇴락별 아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스태프

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공연이든 책이든 만화든 게임이든. 어떤 창작물이든 마찬가지다.

저작권은 단순히 법의 의미를 넘어서는. 법을 나아가 현장에서 흘리는 땀의 가치를 짓밟지 않기 위한 사회적 안전 장치라고 그날 깨달았던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결국 작품 이전에 그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일이며, 그들의 삶에 "당신의 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는, 작지만 확실한 연대.

작품 뒤에는, 노동 그 이상의 무언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